[파이낸셜뉴스]건국대, KU 중국기업연구소 신설(2014.02.20)

건국대, KU 중국기업연구소 신설

(서울=연합뉴스) 설승은 기자 = 건국대는 교내 KU 중국연구원 산하에 KU 중국기업연구소를 신설하고 20 일 새천년관에서 창설 기념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.

KU 중국기업연구소는중국과 중화권 기업을 국영·교판·민영·가족·벤처·다국적·화교기업 등 7 개 유형으로 세분해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국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.

세미나 주제는 '중국의 창의·혁신형 창업 발전 및 한·중협력 모델'이었으며, 중국 칭화대(清華大)가 주도한 '산·학·연' 창업 모델 '칭화지주회사'의 쉬징훙(徐井宏) 이사장과 중국의 대표 엔젤투자자 류즈숴(劉志碩) 사장 등이 참석했다.

송희영 건국대 총장은 "앞으로 칭화대, 남경대 등 중국 명문대와 한·중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구축해 합작사업을 개발할 것"이라며 "양국 학자와 전문가들이 건설적인 방안을 많이 제시하길 기대한다"고 말했다

ses@yna.co.kr